

양태 조동사의 외부 부정과 의미 등급의 상관관계*

이 명 정**

<目次>

I. 서론	2. 인식양태와 의무양태
II. 의미 유형에 따른 양태 조동사의 부정 양상	조동사의 부정 형식의 인가조건
III. 의미 등급에 따른 양태 조동사의 부정	3. 동적양태 조동사의 의미 강도와 부정
1. 인식양태와 의무양태 조동사의 의미 등급	IV. 결론

I. 서론

현대중국어에서 양태 조동사는 일반 동사처럼 부정부사 ‘不’와 공기하여 부정 형식을 취할 수 있지만 의미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¹⁾

- | | |
|-------------------------|----------------------|
| (1) a. 不 可以 de去。 | b. *不 可以 dy去。 |
| (2) a. 不 應該 de去。 | b. *不 應該 ep去。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0085). 또한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과 서지은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 인식양태는 ep, 의무양태는 de, 동적양태는 dy로 표시한다.

양태 조동사 ‘可以’는 ‘능력’과 ‘허락’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1)처럼 부정 형식 ‘不可以’는 ‘허락’ 의미만 나타낸다. ‘應該’는 ‘타당’ 의미와 ‘추론’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2)처럼 부정 형식 ‘不應該’는 ‘타당’ 의미만 나타낸다. 따라서 ‘능력’을 나타내는 ‘可以’에 대한 부정은 다른 형식을 사용해야 하고, ‘추론’을 나타내는 ‘應該’에 대한 부정도 다른 형식을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긍정과 부정의 형식 간의 비대칭(asymmetry)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비대칭이라는 결과는 해당 양태 조동사가 부정 형식을 취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고는 양태 조동사의 의미에 따른 부정 형식을 고찰하고, 부정 형식을 인가하는 조건과 비대칭이 발생하게 된 동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의미 유형에 따른 양태 조동사의 부정 양상

현대중국어 양태 조동사의 부정은 형식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부정사가 조동사보다 선행하는 ‘Neg+Aux+VP’ 형식과 부정사가 조동사보다 후치하는 ‘Aux+Neg+VP’ 형식이다.²⁾ Horn(2001:217)에서는 전자를 외부 부정(outer negation), 후자를 내부 부정(inner negation)으로 칭하였다. 양태(modality)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라고 할 때, 양태 구문을 화자의 주관성을 나타내는 양태 성분과 객관적 정보를 나타내는 명제 부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³⁾ 따라서 외부 부정 ‘Neg+Aux+VP’ 형식을 양태에 대한 부정, 내부 부정 ‘Aux+Neg+VP’ 형식을 명제에 대한 부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이 외에도 이중부정 형식 ‘Neg+Aux+Neg+VP’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논하지 않는다. 또 현대중국어에서 대표 부정부사 ‘不’와 ‘沒’ 2개가 있지만 ‘沒’는 본고의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3) 于康, 〈命題內成分與命題外成分—以漢語助動詞爲例〉, 《世界漢語教學》 第1期(總第35期), 1996, 26頁.

일반적으로 양태는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 의무양태(deontic modality), 동적양태(dynamic modality) 세 가지로 구분한다(Palmer2001, 彭利貞2007 등).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得(dei), 要, 應該, 該, 會, 可能, 一定’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得’⁴⁾, ‘要’⁵⁾, ‘該’⁶⁾는 외부 부정 형식으로 인식양태를 나타낼 수 없고 ‘會’와 ‘可能’만 가능하다. 한편 ‘應該’의 부정 형식 ‘不應該VP’가 인식양태를 나타낼 수 있는지는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彭利貞(2007:319)에서는 ‘不應該VP’는 의무양태와 인식양태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고, 郭昭軍(2011:72), 林劉巍(2016:92)에서는 ‘不應該VP’는 당위성의 의무양태만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고가 조사한 말뭉치 자료에서 ‘不應該VP’는 예외 없이 모두 의무양태만 나타내고 있으며 인식양태로 해석할만한 예문은 찾을 수 없었다.⁷⁾

- (3) a. 人在局促不安時**不應該**_{de}坐在高腳凳上。

(사람은 불안할 때는 키 높이 의자에 앉아서는 안 된다.)

- b. 我當時真**不應該**_{de}跑, 更**不應該**_{de}轉回臉去。

(그때 정말 도망가서는 안 되었고, 등은 더 돌려서는 안 되었었다.)

의무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要, 得(dei), 應該, 該, 能, 可以’ 등이 있는데 대부분 조동사는 외부 부정 형식으로 의무양태를 나타낼 수 있지만 ‘得’의 부정 형식 ‘不得’는 의무양태를 나타내지 않는다.⁸⁾

- 4) 呂叔湘 主編,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7[1999], 166頁. 郭昭軍, <“該”類助動詞的兩種模態類型及其選擇限制>, 《南開語言學刊》第2期(總第18期), 2011, 73頁.
- 5) ‘將要’ 의미를 나타내는 ‘要’의 부정은 형식은 ‘不要’가 아닌 ‘不V’ 혹은 ‘不會V’이다. Chao, Yuenren, *A Grammar of Spoken Chinese*, Berkeley, California, 1968. 呂叔湘 譯, 《漢語口語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1979, 326頁.
- 6)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北京: 商務印書館, 2014[1942], 356頁. 褚智敏, 《能願動詞肯否不對稱問題分析》, 廣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16頁.
- 7) CCL 말뭉치에서 ‘應該’ 관련 예문 7,272개를 추출하였고, 이 중에서 ‘不應該’를 포함한 예문은 685개이다.

- (4) a. 這件事**得**請示上級。(이 일은 상급 기관에 물어보아야 한다.)
 b. 這件事**不用(*不得)**請示上級。(이 일은 상급 기관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
 (5) a. 借東西**要**還。(물건을 빌렸으면 돌려주어야 한다.)
 b. 借東西**不用(*不要)**還。(물건을 빌려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

(《現代漢語八百詞》)

(4)처럼 현대중국어에서 ‘不得’를 사용하여 의무양태 ‘得’를 부정할 수 없고 다른 부정 형식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공구서에서 의무양태 ‘要’의 부정을 ‘不要’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5)에서 알 수 있듯이 ‘不要’가 의무양태를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의무양태 ‘要’의 ‘필요성’ 의미에 대한 부정인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⁹⁾

동적양태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能, 會, 可以, 要, 想, 肯, 敢, 願意’ 등이 있는데 대부분 조동사는 외부 부정 형식을 취하면서도 동적양태를 나타낼 수 있지만 ‘可以’와 ‘要’의 부정 형식 ‘不可以’와 ‘不要’는 동적양태를 나타내지 않는다.¹⁰⁾

- (6) 我明天有事, **不能(*不可以)**來了。(나는 내일 일이 있어서 올 수 없다.)
 (7) 我**不想(?不要)**進去。(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現代漢語八百詞》)

‘不可以’와 ‘不要’는 일반적으로 의무양태의 ‘불허’와 ‘금지’ 의미를 전달

- 8) 呂叔湘 主編,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7[1999], 166頁. 齊滬揚 主編, 《現代漢語語氣成分用法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11, 98頁.
 9) 朱德熙, 《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1982, 64頁. 韓文, 《能願動詞“能、會、要、想”的肯定/否定不對稱現象研究》, 蘇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29頁. 박재승, 〈조동사 ‘要’의 긍정·부정 형식 간 비대칭 현상 연구〉, 《중국어연구》 제58집, 2011.
 10) 呂叔湘 主編,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7[1999], 337頁, 592頁. 齊滬揚 主編, 《現代漢語語氣成分用法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11, 261頁, 452頁.

하기 때문에 동적양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결과이지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6)처럼 ‘不可以’가 동적양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이견이 없다. 하지만 (7)처럼 동적양태를 나타내는 ‘要’의 부정을 ‘不要’로 표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現代漢語八百詞》, 《現代漢語語氣成分用法詞典》을 포함한 대부분 공구서와 박재승(2011:190), 李穎(2013:98) 등은 ‘不要’를 사용하여 동적양태 ‘要’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實用現代漢語語法》(2007:176)에서는 중국의 남쪽 지역에서, 彭利貞(2007:317)에서는 중국 남쪽 지역의 일부 방언(예컨대 오방언)에서 ‘不要’를 사용하여 동적양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古川裕(2006:98), 郭昭軍·尹美子(2008:36)에서는 ‘不要’의 동적양태 표현은 홍콩, 대만 지역에서 사용하는 용법이라고 하면서 논하지 않았다. 반면, 일찍이 朱德熙(1982:64)에서는 ‘不要’로 동적양태를 나타내는 ‘要’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말뭉치 자료를 살펴보면 ‘不要’로 동적양태를 전달하는 용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 (8) a. 我**不要**和你一塊走。我**不要**和你一起回家。
 (나는 너랑 가지 않을 거야. 너랑 집에 같이 가지 않을 거야.)
 (嚴歌苓, 《一個女人的史詩》)
- b. 別甜言蜜語, 這種話我**不要**聽。
 (달콤한 말 그만 하세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葉兆言, 《不娶我你後悔一輩子》)
- c. 我**不要**聽你解釋。你欺負我, 我從此沒有臉見人, 你欺負我!
 (당신의 변명 듣지 않을래요.)
 (錢鍾書, 《圍城》)
- (9) a. 菖蒲皺起眉頭, 冷冷地說: “我**不要**誰來服侍, 請你離開。”
 (누구의 돌봄도 원치 않으니 떠나주세요.)
 (劉紹棠, 《狼煙》)
- b. “我**不要**聽, 我要走, 你放我走!” 女人又哭泣起來。
 (듣기 싫어요, 떠날래요, 제발 놔주세요!)
 (尤鳳偉, 《石門夜話》)

- c. 他喃喃念叨：“我不要住院，我明天還要去挖礦車底煤，你們不要把我送到醫院……” (입원하고 싶지 않아요.)

(1994年報刊精選)

- (10) a. 張太太現出不耐煩的神氣揮手說：“我不要聽你的大道理。”

(당신이 하는 거창한 설교 듣고 싶지 않아요.)

(巴金, 《家》)

- b. 你別跟我說這個! …我不要聽你這套。

(나는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

(王朔, 《你不是一個俗人》)

- c. 她以為是雁兒又端茶來，就敲了一下門背，煩死了，我不要喝茶。

(아오 진짜, 차 안 마실 거야.)

(蘇童, 《妻妾成群》)

(8-10)에서 ‘不要’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충분히 동적양태 ‘要’에 대한 부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위 용례는 모두 중국 대륙 작가의 작품에서 발췌하였으며 기존 주장대로 ‘嚴歌苓, 葉兆言, 錢鍾書’ 등이 중국 남방 지역 출신 혹은 유학 경험이 있는 작가라서 ‘不要’를 동적양태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9a)와 (9b)를 사용한 ‘劉紹棠(하북성 출신), 尤鳳偉(산둥성 출신)’은 중국 북방 지역 출신이며, 심지어 (9c)를 발췌한 1994년 ‘報刊精選’은 중국의 주류 관영매체이다. (10)의 용례는 중국의 저명한 현·당대 작가 ‘巴金, 王朔, 蘇童’의 작품에서 발췌하였으니 공신력과 규범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不要’의 동적양태 용법이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한다거나 방언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不要’의 동적양태 용법은 강한 주관성을 나타내므로 1인칭 주어와 공기하고 화용적인 제약을 받게 되는데 자세한 것은 후술하기로 한다.

이로써 양태 범주에서 외부 부정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태 조동사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¹⁾

11) ‘必須’를 양태 조동사로 분류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고는 양태

〈표 1〉 양태 의미에 따른 조동사의 외부 부정

동적양태		의무양태		인식양태	
Aux+VP	Neg+Aux+VP	Aux+VP	Neg+Aux+VP	Aux+VP	Neg+Aux+VP
能	不能	要	? 不要	得	*不得(不會)
會	不會	得	*不得(不用)	要	*不要(不會)
可以	*不可以	該	不該	應該	*不應該(不會)
要	不要	應該	不應該	該	*不該(不會)
想	不想	能	不能	會	不會
肯	不肯	可以	不可以	可能	不可能
敢	不敢	必須	不必	一定	不一定
願意	不願意				

Ⅲ. 의미 등급에 따른 양태 조동사의 부정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중국어에서 인식양태의 ‘得’, ‘要’, ‘應該’, ‘該’와 의무양태의 ‘得’, 동적양태의 ‘可以’는 외부 부정 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바 부정 형식의 부재는 결국 비대칭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동안 양태 조동사의 긍정-부정 형식의 비대칭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褚智歆(2008)에서는 양태 조동사 전반에 대한 긍정-부정 형식의 대칭, 비대칭 현상을 정리하고 의미 강도, 운율 등이 비대칭 현상을 초래한다고 하였지만, 동적양태에서 ‘可以-不能’의 비대칭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韓文(2016)에서는 ‘能, 會, 要, 想’의 비대칭 현상을 의미 강도, 은유 등으로 설명하였지만 방법론에 따른 기술은 그 결과를 의심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褚智歆(2008), 韓文(2016)에서 조동사 간의 의미 강

의미 등급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동적양태의 연원 표현에서 ‘想’과 ‘要’만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도에 대한 검증 없이 직관력에 따른 판단에 그치고 있고 비대칭 현상 나열이 주를 이루고 있다.¹²⁾

박재승(2011)은 ‘要’의 긍정-부정 비대칭 현상을 ‘不要’가 ‘금지 양태’로의 기능적 전문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고, 비대칭 형식의 성립 전제를 ‘동일한 기능 범주에 속해야 하며 하나 이상의 완전하게 일치하는 의미 자질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런 결론이 ‘要’의 비대칭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른 조동사의 비대칭 현상에도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林劉巍(2016)에서는 ‘가능 세계’, ‘의미 강도’ 등 측면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양태 조동사의 의미 강도를 증명하고 의미 강도가 약한 조동사는 부정 극성어 특성을 보이고, 의미 강도가 강한 조동사는 긍정 극성어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논증과 결론이 ‘경향성’이라는 명분 아래 꽤 많은 예외가 발생하게 되는데 옳기면 다음과 같다(林劉巍2016:78-80).

첫째, 주장대로라면, 의무양태의 ‘可以’가 약 의미 강도의 ‘허가’류에, 인식양태의 ‘可能’이 약 의미 강도의 ‘가능’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부정 형식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긍정 형식도 존재한다.

둘째, 주장대로라면, 인식양태의 ‘一定’이 강 의미 강도의 ‘필연’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긍정 형식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부정 형식도 존재한다.

셋째, 인식양태와 의무양태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應該’와 ‘該’는 중간 의미 강도에 속하지만, ‘개연’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응당’ 의미를 나타낼 때와 달리 긍정 형식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林劉巍(2016:79)에서도 이런

12) 특히 이들은 모두 石毓智(2001[1992]:53)의 ‘긍정·부정 형식의 논리적 공리 이론(自然語言의肯定否定公理)’를 그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미 강도가 가장 약한 단어는 부정 형식에서만 사용되는 반면, 의미 강도가 가장 강한 단어는 긍정 형식에서만 사용된다.” 그러나 단적인 예로 추측의 범주에서 의미 강도가 가장 약한 ‘可能’과 의미 강도가 가장 강한 ‘一定’은 긍정과 부정 형식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공리 이론에 반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상은 중간 의미 강도에 있는 양태 조동사가 외부 부정과 내부 부정이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중간 의미 강도에 속하는 ‘응당’ 의미의 ‘應該’는 부정 형식이 존재하므로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넷째,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會’, 의무양태를 나타내는 ‘要’는 모두 강한 의미 강도의 ‘필연’과 ‘필요’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긍정 형식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부정 형식도 존재한다.

이에 본고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발견하고 의미 등급과 함의 관계를 통하여 양태 조동사의 외부 부정 형식의 인가조건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1. 인식양태와 의무양태 조동사의 의미 등급

沈家煊(1999), 石毓智(2001)에서는 부정이 양화(quantification)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언어의 비대칭 현상을 양화 개념과 결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어의 양태 조동사에서도 이러한 양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郭昭軍(2003:389)에서는 가능성의 정도에서 ‘也許<可能<大概<很/非常/十分<極可能<會’는 차례대로 커진다고 하였다. 崔希亮(2003:341)에서는 의무 등급에서 ‘要<應該<得<不得不<必須’는 차례대로 커진다고 하였다. 彭利貞(2007:160)에서도 인식양태를 ‘필연성-개연성-가능성’, 의무양태를 ‘필요-의무-허가’, 동적양태를 ‘바람(강)-바람(일반)’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중국어에서 양태 조동사 간에는 의미 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문제는 양태 조동사의 의미 강도를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양태 조동사의 긍정-부정 형식의 비대칭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의미 강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林劉巍(2016)의 논증 방법이 비교적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林劉巍(2016:27-29)에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 양태 조동사의 의미 강

도를 판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아래의 공식[i]을 사용하여 가능류 양태 조동사를 분류하고, 공식[ii]을 사용하여 나머지 양태 조동사에 대한 필연류 혹은 개연류 여부를 판단하였다.

[i] M+VP, M+不+VP

[ii] M+VP, 可能+不+VP

이 검증 방법의 맹점은 내부 부정 형식을 사용할 수 있는 양태 조동사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것이다. 공식[i]에서 1음절 인식양태 조동사(‘得, 要, 該, 會’ 등)는 일반적으로 내부 부정 형식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i]이 성립하지 않은 원인이 의미 강도가 강해서인지 아니면 내부 부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의무양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의미 강도를 판단하였으니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앞서 지적한 예외들이 존재하므로 본고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주요 양태 조동사의 의미 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Horn(2001), 沈家煊(1999:138)의 의미 등급 규칙에 따르면 ❶ 동일한 척도적인 등급에서 강한 표현은 약한 표현을 의미론적으로 함의한다. ❷ 긍정 등급에서 약한 표현을 부정하면 부정 등급의 강한 표현이 되고 긍정 등급에서 강한 표현을 부정하면 부정 등급의 약한 표현이 된다. ❸ 긍정 등급에서 중간 표현을 부정하면 부정 등급에서 여전히 중간 등급의 표현이 된다. 이를 등급 함의(scalar entailment)라고 한다.

沈家煊(1999:65)에 따르면 함의(entailment)는 어떤 명제 p가 성립하는 (참인) 모든 상황에서 다른 명제 q도 참이라고 하는 진리 조건적 관계를 의미하며, 이때 p가 의미적으로 q를 함의한다고 말하며 ‘ $p \Rightarrow q$ ’로 표시한다.¹³⁾

(11) a.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

b. 철수가 과일을 먹었다.

(12) a. 철수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

b. 철수가 과일을 먹지 않았다.

13) ‘ \Rightarrow ’는 의미적인 함의를 의미한다.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라면 ‘철수가 과일을 먹었다’가 사실이므로 (11a)가 (11b)를 함의(11a⇒11b)한다. 함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¹⁴⁾ ❶ p가 참이라면, q도 반드시 참이다. ❷ q가 거짓이라면, p도 반드시 거짓이다. ❸ p가 거짓이라면, q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❹ q가 참이라면 p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郭銳(2006)에서는 함의의 이런 특징으로 인해 (12)처럼 부정문의 함의 방향은 긍정문과 정반대(12b⇒12a)가 된다고 하였다. 이제 함의 관계를 이용하여 양태 조동사의 의미 강도 등급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인식양태 조동사를 먼저 살펴보자.

- (13) 他明天**一定**來看你。 (13) ⇒ (14), (15), (16)
 (그는 내일 반드시 당신을 보러 올 거예요.)
 (14) 他明天**可能**來看你。 (14) ⇏ (13), (15), (16)
 (그는 내일 당신을 보러 올 수도 있어요.)
 (15) 他明天**應該**來看你。 (15) ⇒ (14), (16) (15) ⇏ (13)
 (그는 내일 당신을 보러 올 겁니다.)
 (16) 他明天**會**來看你。 (16) ⇒ (14) (16) ⇏ (13), (15)
 (그는 내일 당신을 보러 올 거예요.)

가능세계(possible world)의 관점에서 보면 ‘一定’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제가 사실이고, ‘可能’은 일부 상황에서 명제가 사실이고, ‘應該’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명제가 사실이고, ‘會’는 단순히 명제가 사실일 거라는 화자의 생각을 의미한다.¹⁵⁾ 따라서 만약 (13)이 참이라면 (14), (15), (16)도 참이기 때문에 ‘一定’은 의미론적으로 ‘可能’, ‘應該’, ‘會’를 함의한다. 만약 (14)가 참이라 하여도 (13), (15), (16)이 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可能’에서 ‘一定’, ‘應該’, ‘會’로의 함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어서 만약 (15)가 참이라면 (14)와 (16)은 반드시 참이고, (13)은 참일 수 없으므로

14) 郭銳, 〈衍推和否定〉, 《世界漢語教學》 第2期(總第76期), 2006, 8頁.

15) 李命定·袁毓林, 〈信念與概率: 認識情態動詞的語義差異及其功能分化〉, 《世界漢語教學》 第32卷 第1期, 2018.

‘應該’에서 ‘可能’과 ‘會’로의 함의 관계는 성립하지만, ‘應該’에서 ‘一定’으로의 함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16)이 참이라면 (14)는 반드시 참이고, (13)과 (15)는 참일 수 없으므로 ‘會’에서 ‘可能’으로의 함의 관계는 성립하지만, ‘會’에서 ‘應該’와 ‘一定’으로의 함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¹⁶⁾ 따라서 등급 함의 규칙①에 따라 4개의 인식양태 조동사에서 ‘一定’은 의미 등급에서 오른쪽에, ‘可能’은 왼쪽에, 그 사이에 ‘會’와 ‘應該’가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식양태 범주에서 ‘可能<會/應該<一定’ 순으로 의미 등급이 높아지고 확실성도 증가한다.

나머지 인식양태 조동사 ‘該, 得, 要’의 의미 등급을 살펴보자.

- (17) (你再不回去,)老王該說你了。 ⇒老王一定說你, ⇒老王可能說你
(계속 돌아가지 않으면, 왕씨가 한 소리 할 겁니다.)
- (18) (你再不回去,)老王得說你了。 ⇒老王一定說你, ⇒老王可能說你
(계속 돌아가지 않으면, 왕씨가 한 소리 할 겁니다.)
- (19) (你再不回去,)老王要說你了。 ⇒老王一定說你, ⇒老王可能說你
(계속 돌아가지 않으면, 왕씨가 한 소리 할 겁니다.)

(17-19)에서 왕씨가 반드시 한 소리 할 거라고 추론할 수 없지만, 왕씨가 한 소리 할 수도 있다고는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該’, ‘得’, ‘要’는 ‘一定’을 함의할 수 없지만, ‘可能’은 함의 할 수 있고 이들은 의미 척도에서 ‘可能’과 ‘一定’의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이들과 ‘會’, ‘應該’와의 함의 관계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의미 척도에서의 위치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인식양태 조동사의 긍정의미 등급에서 ‘可能’은 함의할 수 있는 조동사가 없으므로 가장 왼쪽에, ‘一定’은 함의할 수 없는 조동사가 없으므로 가장 오른쪽에 놓인다. 따라서 인식양태 조동

16) ‘應該’와 ‘會’의 함의 관계의 경우, 이상적(규범적인)인 상황에서 명제가 사실이라는 것에서 화자가 명제가 사실이라는 인식을 추론할 수 있지만, 역으로 화자가 명제가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이상적인 상황에서 명제가 사실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없으므로, ‘應該’는 ‘會’를 함의하지만(應該⇒會), 반대의 경우(會⇒應該)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의 긍정의미 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可能	會/要/得/該/應該	一定
약	-----	강

다음으로 외부 부정 형식이 가능한 의무양태 범주의 조동사도 위와 같은 함의 관계를 통하여 의미 척도에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20) 你**必須**回去。 (20) ⇒ (21), (22)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 (21) 你**可以**回去。 (21) ⇌ (20), (22)
(돌아가도 됩니다.)
- (22) 你**應該**回去。 (22) ⇒ (20), (21) (22) ⇌ (20)
(돌아가야 합니다.)

‘必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당 행위를 해야 하고, ‘可以’는 일부 상황에서 해당 행위를 해도 되고, ‘應該’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해당 행위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20)이 참이라면, (21), (22)도 참이기 때문에 ‘必須’는 의미론적으로 ‘可以’와 ‘應該’를 함의한다. 만약 (21)이 참이라 하여도 (20)과 (22)는 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可以’에서 ‘必須’, ‘應該’로의 함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¹⁷⁾ 이어서 만약 (22)가 참이라면 (21)은 반드시 참이고, (20)은 참일 수 없으므로 ‘應該’에서 ‘可以’로의 함의 관계는 성립하지만, ‘應該’에서 ‘必須’로의 함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등급 함의 규칙①에 따라 ‘必須’는 의미 등급에서 오른쪽에, ‘可以’는 왼쪽에, 그 사이에 ‘應該’가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무양태 범주

17) ‘可以’와 ‘應該’는 내부 부정 형식이 존재하므로 이 둘의 함의 관계는 林劉巍(2016)의 [i]를 사용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① 은 성립하고 ② 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可以’는 ‘應該’보다 강도가 약하다.
① 你可以回去, 也可以不回去。 ② *你應該回去, 也應該不回去。

에서 ‘可以<應該<必須’ 순으로 의미 등급이 높아지고 강제성도 올라간다. 이제 나머지 의무양태 조동사 ‘要, 得, 能’을 살펴보자.

- (23) 你**要**回去。 ≠你必须回去, ⇒你可以回去
 (돌아가야 합니다.)
- (24) 你**得**回去。 ≠你必须回去, ⇒你可以回去
 (돌아가야 합니다.)
- (25) 你**能**回去。 ≠你必须回去, ⇒你可以回去
 (돌아갈 수 있습니다.)

(23)-(25)에서 ‘너는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추론할 수 없지만, ‘너는 돌아가도 된다’라고 추론할 수 있으므로, ‘要, 得, 能’은 ‘必須’를 함의할 수 없고, ‘要, 得’은 ‘可以’를 함의할 수 있다. 여기서 ‘能’과 ‘可以’는 모두 ‘허가’의 의미 범주로 의미 강도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你能回去’와 ‘你可以回去’는 의미론적으로 서로를 함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화자의 개입 측면에서 주·객관성의 차이만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 의무양태 조동사의 긍정의미 등급에서 ‘可以’는 함의할 수 있는 조동사가 없으므로 가장 왼쪽에, ‘必須’는 함의할 수 없는 조동사가 없으므로 가장 오른쪽에 놓인다. 따라서 의무양태 조동사의 긍정의미 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可以	能/(應)該/要/得	必須
약	-----	강

2. 인식양태와 의무양태 조동사의 부정 형식의 인가조건

양태라는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양태 논리학, 즉 대당 사각형(square

18) 박재승·이명정, <조동사 ‘能’과 ‘可以’의 기능 비교 연구-양태범주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55권, 2012.

과 전부 사이의 양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세 술도 뜨지 않았다’ 또는 ‘두 마디도 하지 않았다’로 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양태와 의무양태 등급에서 가장 약한 표현과 가장 강한 표현 사이의 놓인 성분은 일반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인식양태 긍정 등급에서 가장 약한 표현은 ‘可能’이고, 의무양태 긍정 등급에서 가장 약한 표현은 ‘可以’이다. 따라서 ‘전칭 양화 긍정·부정’ 규칙에 따라 이들의 부정 형식은 불확실성과 자율성을 부정하게 되고²¹⁾ 규칙②에 따라 부정 등급에서 가장 오른쪽에 놓이게 된다. 인식양태 긍정 등급에서 가장 강한 표현은 ‘一定’이고, 의무양태 긍정 등급에서 가장 강한 표현은 ‘必須’이다. 역시 규칙②에 따라 이들의 부정 형식은 부정 등급에서 가장 왼쪽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표 1>처럼 의미 등급에서 [약], [강]한 강도를 나타내지 않는 다른 조동사도 부정 형식이 존재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대표 적인 조동사가 인식양태 ‘會’와 의무양태 ‘應該’이다. 규칙③에 따르면 중간 등급에 있는 성분은 부정사의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런 성분은 외부 부정 형식으로 내부 부정 형식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28) 我認爲我們沒有錯=我不認爲我們有錯

(나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 나는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9) 我覺得這不丟人=我不覺得這丟人

(나는 이게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 나는 이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30) 我打算不考大學=我不打算考大學

(나는 대학에 가지 않을 계획이에요 = 나는 대학에 갈 계획이 없어요)

(31) 他很可能不參加=他不很可能參加

(그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 그는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不對稱和標記論》)

21) 인식양태에서 가장 약한 표현인 긍정 등급의 ‘可能’과 부정 등급의 ‘不一定’은 불확실성, 가장 강한 표현인 긍정 등급의 ‘一定’과 부정 등급의 ‘不可能’은 확실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무양태에서 가장 약한 표현인 긍정 등급의 ‘可以’와 부정 등급의 ‘不必’는 자율성, 가장 강한 표현인 긍정 등급의 ‘必須’와 부정 등급의 ‘不可以’는 강제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認為, 覺得, 打算, 很可能’의 내부 부정과 외부 부정이 전달하는 의미가 등치가 되는 것은 이들이 의미 등급에서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32-33)에서도 ‘會’와 ‘應該’의 외부 부정과 내부 부정의 의미가 유사하며 이중부정 형식에서 부정 표지는 서로 상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²⁾ 따라서 인식양태 ‘會’와 의무양태 ‘應該’는 중간 의미 등급을 나타낼 수 있다.²³⁾

- (32) a. 他不會_{ep}來=他會_{ep}不來
 (그는 오지 않을 거예요=그는 안 올 거예요)
 b. 他不會_{ep}不來=他會_{ep}來
 (그는 안 오지 않을 거예요=그는 올 거예요)
- (33) a. 他不應該_{de}來=他應該_{de}不來
 (그 사람은 오면 안 됐어=그 사람은 안 왔어야 했어)
 b. 他不應該_{de}不來=他應該_{de}來
 (그 사람은 안 오면 안 됐어=그 사람은 왔어야 했어)

한편, 인식양태 ‘會’와 의무양태 ‘應該’의 부정 형식의 출현은 화용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부정문은 상응하는 긍정문을 전제하기에,²⁴⁾ 엄밀히 말하면 (32)-(33)의 a에서 내부 부정 형식(會不來, 應該不來)은 부정문이라고 할 수 없다. ‘他不會來’는 긍정문 ‘他會來’라는 전제를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표현이지만, ‘他會不來’는 상응하는 긍정문이 존재하지 않고 그 자체가 긍정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 부정 형식과 외부 부정 형식이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가정하에 부정 의미가 돋보이려면 내부 부정 형식보다는 외부 부정 형식이 더 효과적이고 부정 의미를 강조하

22) 丁聲樹, 《現代漢語語法講話》, 北京: 商務印書館, 1961, 201頁.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北京: 商務印書館, 2014[1942], 359頁. 沈家煊, 《不對稱和標記論》, 江西: 江西教育出版社, 1999, 143-144頁.

23) ‘會’의 의미 강도에 대해서, 彭利貞(2007:160)은 중간 등급인 ‘개연성’을, 林劉巍(2016:77)은 가장 강한 필연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24) 沈家煊, 《不對稱和標記論》, 江西: 江西教育出版社, 1999, 44頁.

게 된다. 실제로 현대중국에서 ‘會不VP’보다는 ‘不會VP’를, ‘應該不VP’보다는 ‘不應該VP’를 더 많이 사용되며 무표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²⁵⁾ 따라서 ‘不會’와 ‘不應該’는 논리학적인 의미 관계에 기반한 화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정리하면 긍정의미 등급에서 [약], [중], [강]에 놓인 양태 조동사는 부정 형식을 취할 수 있지만, 나머지 조동사는 외부 부정 형식을 인가하지 않는다.

(要/得/該/應該)		
可能	會	一定
약-----	중-----	강-----
不一定	不會	不可能
(*不要/*不得/*不該/*不應該)		

(能/要/得)		
可以	(應該)	必須
약-----	중-----	강-----
不必	不(應該)	不可以
(*不得/不要/不能)		

설명: 의미 등급표에서 기울어진 글씨체로 표기한 조동사는 중간 등급이 아닌 약한 등급과 강한 등급 사이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위 등급표를 보면 의무양태 조동사 ‘能’과 ‘要’는 [약]-[중]-[강] 어디에도 놓이지 않지만 모두 부정 형식(‘不能’, ‘不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바 의무양태의 ‘可以’와 ‘能’은 자율성의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하기 어렵다. 박재승·이명정(2012)에 따르면, ‘可以’는 주관성을, ‘能’은 객관성을 나타낸다고 하였지만, 이는 허가를 내

25) 내·외부정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리는 근원의 발원지에 따른 구분으로 자율성 혹은 강제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손성의 원리(Politeness Principle)’에 따라 화자의 개입이 강하게 느껴지는 ‘可以’보다는 청자에게 부담을 덜 주는 객관 표지 ‘能’의 부정 형식이 화자의 체면을 더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不能’의 존재도 화용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不要’의 경우 앞에서 필요성을 나타는 ‘要’에 대한 부정 형식으로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필요성을 나타내는 ‘要’를 포함한 문장을 ‘不要’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⁶⁾ 또 다른 이유는 긍정의미 등급에서 ‘要’가 ‘可以’와 ‘必需’ 사이에 있으므로 부정 의미 등급에서도 ‘不必’와 ‘不可以’ 사이에 출현해야 한다.²⁷⁾ 하지만 현대중국어에서 ‘不要’의 금지는 ‘不可以’보다 현저하게 강하며 심지어 이미 금지 표지로 자리 잡았고, 2음절이 1음절화 되어 ‘別’라는 형식까지 생겨나기도 하였다.²⁸⁾ 이런 점에서 볼 때 ‘不要’는 ‘금지’라는 의무양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현대중국어에서는 이미 금지 표지로 전문화 되어 의미 강도 등급이 반영된 부정이 아닌 화용적인 필요에 의한 부정 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동적양태 조동사의 의미 강도와 부정

Palmer(2001:22)에 따르면 동적양태는 능력(abilitive)과 염원(volitive) 두 가지 개념과 관련 있다. 물론 동적양태는 인식양태와 의무양태처럼 가능성과 필연성 혹은 자율성과 강제성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능력 범주와 염원 범주에서의 의미 등급의 차이를 통해 이들의 외부 부정 형식

26) 이명정, <현대중국어 ‘不能’의 의무양태 의미 연구>, 《중어중문학》 제79집, 2020, 232쪽.

27) 허가에 대한 부정보다는 필요에 대한 부정이 나타내는 금지가 더 약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며, 근대중국어에서 ‘不要’가 이러한 금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北京: 商務印書館, 2014[1942], 427頁.)

28) 같은 책 428쪽.

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林劉巍(2016:54)에서는 동적양태의 능력 범주에서 의미 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侯瑞芬(2009), 이명정(2023) 등은 Talmy(2000)의 힘-역학(Force Dynamics) 이론에 근거하여 동적양태 조동사가 나타내는 능력 의미를 꽤 심도 있게 묘사하였다.

(34) 他會走路了。 (34) \neq (35), (36)

(그는 길을 줄 알게 되었다.)

(35) 他可以走路了。 (35) \Rightarrow (34), (36)

(그는 길을 수 있게 되었다.)

(36) 他能走路了。 (36) \Rightarrow (34), (36) \neq (35)

(그는 길을 수 있게 되었다.)

(34)는 길을 줄 안다는 의미이고, (35)는 걷는 데 장애 요소가 없다는 의미이고, (36)은 길을 수 있는 조건이 완비되었다는 의미이다. 함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면, 만약 (34)가 참이라면 (35)와 (36)이 꼭 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길을 줄 알아도 어떤 장애가 있거나 조건의 부재로 못 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會’는 ‘可以’와 ‘能’을 함의하지 못하고 규칙①에 따라 이들보다 왼쪽에 있고 나타내는 ‘능력’ 의미는 이들보다 약하다. 만약 (35)가 참이라면 길을 줄 아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34)는 참이고 ‘可以’는 ‘會’보다 오른쪽에 놓인다. 만약 (36)이 참이라면 길을 줄 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34)는 참이고 ‘能’은 ‘會’보다 오른쪽에 놓인다. 다만, ‘能’과 ‘可以’의 함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조건이 완비해도 장애가 있으면 동작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²⁹⁾ (36)이 참이라 하여도

29) ‘조건’과 ‘장애’의 관계를 Sweetser(1990)의 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can은 자동차의 가득 찬 연료통의 등가물이고, may는 열려 있는 차고 문의 등가물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연료가 가득 차도 차고가 닫혀 있으면 움직일 수 없게 된다. (Sweetser, Eve.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53.)

(35)를 추론할 수 없다. 물론 장애 요소가 없어도 조건이 부재하면 동작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35)가 참이라 하여 (36)을 추론할 수 없다. 따라서 ‘能’과 ‘可以’의 함의 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워 의미 등급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다만 힘-역학의 관점에서 장애 없음을 통해 실현되는 ‘可以’의 능력이 장애 극복을 통해 실현되는 ‘能’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선행연구(彭利貞 2007:156, 334, 侯瑞芬2009, 이명정2023)에 따라 ‘可以’가 ‘能’보다 의미 등급이 높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동적양태 범주에서 ‘會<能<可以’ 순으로 의미 등급이 높아지고 나타내는 능력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부정 등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4) 他**不會**走路了。

(35) *他**不可以**走路了。

(36) 他**不能**走路了。

걸을 줄 모른다는 의미에서 걸을 수 없다는 의미를 추론할 수 있지만, 역으로는 불가하다. 걸을 수 없는 것이 다른 조건의 부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34)가 참이라면 (36)도 참이고, ‘不會’는 ‘不能’을 함의한다. 만약 (36)가 참이라면 (34)가 꼭 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규칙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긍정 등급과 부정 등급을 나타낼 수 있다.

會	能/可以
약	강
*不可以/不能	不會

우선 ‘會’는 ‘긍정 등급의 가장 약한 표현의 부정이 부정 등급에서 강한 표현의 부정이 된다’는 규칙②에 부합하므로 가장 약한 등급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앞서 힘-역학 관계를 통해서 ‘能’과 ‘可以’의 의미 등급을 추측했다. 만약 이 추측이 정확하다면, 즉 ‘可以’가 긍정 등급에서 가장 강한

표현이라면 규칙②에 따라 부정 등급에서 가장 약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야 할 ‘不可以’의 부재, 그리고 ‘不能’의 존재를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만약 ‘能’이 긍정 등급에서 가장 강한 표현이라면 규칙②에 따라 중간 등급을 제외한 약한 등급과 강한 등급 사이에 있는 표현은 부정할 수 없기에 ‘不可以’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후자가 본고의 논지에는 맞지만, 이 역시 가설일 뿐이고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 대한 반론이 되지 못하므로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 즉 긍정 등급에서 ‘可以’가 ‘能’보다 의미 강도가 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한바 동적양태의 염원 의미를 전달하는 ‘想’과 ‘要’는 모두 부정 형식을 취할 수 있다. ‘想’과 ‘要’는 모두 내부 부정이 가능하므로 [i]을 사용하여 염원 의미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37) 她又想去, 又想不去, 拿不定主意。(《倒序現代漢語詞典》)

(그녀는 가고 싶기도 하고, 가고 싶지 않기도 하고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38) *她又要去, 又要不去, 拿不定主意。

위 예문처럼 ‘想’은 [i]에 부합하고 ‘要’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想’은 ‘要’보다 의미 등급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要’는 ‘一定’, ‘堅決’와 같은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성분과 공기하고, ‘想’은 ‘很’, ‘非常’과 같은 정도성이 있는 성분과 공기하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要’는 ‘의지’, ‘想’은 ‘소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앞에서 ‘不要’가 동적양태 의미를 전달하는 용례를 이미 확인하였다. 합의 관계를 통하여 ‘不要’와 ‘不想’의 의미 등급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동적양태 ‘不要’를 사용한 문장을 보면 대체로 2인칭, 3인칭 주어를 배척하고 1인칭 주어, 즉 화자 주어와 공기한다. 또 의미적으로 ‘不想’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의미를 전달하지만, ‘不要’는 여기서 더 나아가 거절이라는 의미까지 전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不要’가 ‘不想’보다 의미 등급이 강하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39) 我/*你/*他不要_{dy}去。

(가지 않을래.)

(40) 我/你/他不想_{dy}去。

(가고 싶지 않아.)

특기할만한 점은 염원의 범주에서 긍정 형식(想)이 약한 강도를 나타내면 부정 형식(不想)도 약한 강도를 나타내고, 긍정 형식(要)이 강한 강도를 나타내면 부정 형식(不要)도 강한 강도를 나타낸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다른 양태 조동사들의 긍정·부정 의미 등급에서 드러나는 현상과 현저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양태 조동사의 부정과 의미 등급의 관계는 인식양태와 의무양태에서는 두드러지지만, 동적양태에서는 그 상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해왔던 동적양태는 전형적인 양태가 아니라는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 동적양태의 긍정 등급과 부정 등급 간에는 어떤 논리적인 함의 관계를 찾을 수 없지만, 긍정 등급에서의 강도 차이, 부정 등급에서의 강도 차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양태와 부정은 양화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와 판단을 의미하므로 주관성은 양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주관성을 가진 양태 표현들은 동일 범주 내에서 가능 세계에

대한 양화를 통하여 구성원 간의 차이를 드러낸다. Jespersen(1924)에 따르면 부정(not)은 양화 표현과 함께 쓰이면 ‘...보다 적은(less than)’의 의미를 전달한다. 따라서 본고는 의미 등급으로 발현되는 양화 개념을 통하여 양태 조동사의 외부 부정에 대해 논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의미 유형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양태 조동사의 외부 부정 형식을 살펴보면 동적양태, 의무양태, 인식양태 순으로 외부 부정 형식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동적양태에서는 ‘可以’, 의무양태에서는 ‘得’, 인식양태에서는 ‘得, 要, 應該, 該’ 등이 외부 부정 형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

둘째, 양태 조동사의 함의 관계와 등급 규칙을 사용하여 의미 척도에서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인식양태 조동사에서 가장 약한 표현은 ‘可能’, 가장 강한 표현은 ‘一定’, 중간 표현은 ‘會’이다. 동적양태 조동사에서 가장 약한 표현은 ‘可以’, 가장 강한 표현은 ‘必須’, 중간 표현은 ‘應該’이다. 동적양태 조동사에서 가장 약한 표현은 ‘會’이지만, ‘能’과 ‘可以’의 모호한 함의 관계로 인해 가장 강한 표현은 ‘可以’이라고 추측하는 데만 그쳤다. 동적양태 조동사 ‘想’과 ‘要’의 경우, ‘想’이 ‘要’보다 의미 등급이 낮은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약하거나 가장 강한 자리에 놓인다고는 할 수 없다.

셋째, 본고는 양태 조동사의 부정 형식의 유무를 의미 등급과 전량 부정이라는 기제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양태 조동사의 부정 형식은 일반적으로 의미 등급에서 [약], [중], [강]의 자리에 놓인 표현만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의무양태의 ‘不能’과 ‘不要’가 있는데 모두 화용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보았다. 물론 동적양태의 염원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의미 등급 규칙의 가장자리가 아니어도 모두 부정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박재승, <조동사 ‘要’의 긍정·부정 형식 간 비대칭 현상 연구>, 《중국학연구》 제58집, 2011.
- 박재승·이명정, <조동사 ‘能’과 ‘可以’의 기능 비교 연구-양태범주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55권, 2012.
- 이명정, <현대중국어 ‘不能’의 의무양태 의미 연구>, 《중어중문학》 제79집, 2020.
- 이명정, <중국어 조동사 서술체계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중국연구》 제90권, 2022.
- 이명정, <基于力動態的動力情態助動詞考察>, 《중국어문학지》 제84집, 2023.
- 褚智歆, <能願動詞肯否不對稱問題分析>, 廣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 崔希亮, <事件情態和漢語的表態系統>, 《語法研究和探索》(12), 331-347頁, 北京: 商務印書館, 2003.
- 丁聲樹, 《現代漢語語法講話》, 北京: 商務印書館, 1961.
- 古川裕, <助動詞“要”的語義分化及其主觀化和語法化>, 《對外漢語研究》第2期, 2006.
- 郭銳, <衍推和否定>, 《世界漢語教學》第2期(總第76期), 2006.
- 郭昭軍, <從“會2”與“可能”的比較看能願動詞“會2”的句法和語義>, 《語法研究和探索》(12), 北京: 商務印書館, 2003.
- 郭昭軍, <“該”類助動詞的兩種模態類型及其選擇限制>, 《南開語言學刊》第2期(總第18期), 2011.
- 郭昭軍·尹美子, <助動詞“要”的模態多義性及其制約因素>, 《漢語學習》第2期, 2008.
- 韓文, <能願動詞“能、會、要、想”的肯定/否定不對稱現象研究>, 蘇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 侯瑞芬, <從力量與障礙看現代漢語情態動詞“可以”、“能”、“會”>, 《語言學

- 論叢》第40輯, 2009.
- 李命定·袁毓林, 〈信念與概率: 認識情態動詞的語義差異及其功能分化〉, 《世界漢語教學》第32卷 第1期, 2018.
- 林劉巍, 《漢語情態和否定的互動研究》, 浙江大學博士學位論文, 2016.
- 劉月華·潘文娛·故鞏,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1.
- 呂叔湘, 《中國文法要略》, 北京: 商務印書館, 2014[1942].
- 呂叔湘 主編,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7[1999].
- 彭利貞, 《現代漢語情態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 沈家煊, 《不對稱和標記論》, 江西: 江西教育出版社, 1999.
- 齊滄揚 主編, 《現代漢語語氣成分用法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11.
- 石毓智, 《肯定和否定的對稱與不對稱》,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1[1992].
- 于康, 〈命題內成分與命題外成分—以漢語助動詞為例〉, 《世界漢語教學》第1期(總第35期), 1996.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倒序現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1987.
- 周北海, 《模態邏輯》, 北京: 商務印書館, 1996.
- 朱德熙, 《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1982.
- Chao, Yuenren. *A Grammar of Spoken Chinese*, Berkeley, California, 1968.
呂叔湘譯, 《漢語口語語法》, 北京: 商務印書館, 1979.
- Jespersen, Otto.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Allen and Unwin, 1924. 何勇等譯, 《語法哲學》, 北京: 商務印書館, 2009.
- Laurence R. Horn. *A Natural History of Neg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1989].
- Palmer, F. R. *Modality and the English Modals*. New York: Longman, 1979.
- Palmer, F. R. *Mood and Modality*. seco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Sweetser, Eve.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Talmy, Leonard. *Toward a Cognitive Semantics(1vols)*. London: MIT Press, 2000.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s of negative forms used according to the meaning of modal auxiliary verbs, and considers the conditions that allow negative forms and the reasons for the occurrence of asymmetry. It was observed that as modal verbs transition from dynamic modality to epistemic modality, the usage of external negation forms becomes less flexible. The entailment and scale rules of modal auxiliary verbs are used to determine the position of modal auxiliary verbs on the semantic scale. The position on the semantic scale was confirmed using the entailment and scale rules of modal auxiliary verbs. Epistemic and deontic modal verbs exhibit clear distinctions in expressions placed on the semantic scale, categorized into weak, moderate, and strong gradations. However, dynamic modality lacks such clear distinctions. Finally, in Mandarin Chinese, only modal verbs positioned in the weak-moderate-strong scale can take outer negation forms. According to the opposition and total negation, other modal verbs are unable to outer negation forms.

Key Words : 조동사(auxiliary verbs), 외부 부정(outer negation),
함의(entailment), 의미 등급(scale), 비대칭 (asymmetry)

